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5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4일 목포고등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5년 전남교육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2025년은 ‘수포자’ 없는 학교로”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4대 영역에서 16대 중점과제 추진 수학 역량 강화, 생활교육과 신설 등 ‘교육활동에 빈틈없도록 최선다할 것’

광주시교육청이 ‘2025 광주교육’ 정책방향을 ‘수포자(수학포기자) 없는 학교’로 잡고 수학과 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한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에서 16대 중점과제 추진한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이언스 등 미래 첨단기술의 주요 기저로 활용되는 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정보화 시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수학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면서 수학·과학 등 기초 학문 교육을 강화해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내 수학 학습코칭 및 멘토링제를 활성화해 학생들의 수학 기초역량과 자신감을 배양시키면서 수학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도 지원한

다. 이 밖에도 학교 현장의 수학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학교와 외부활동을 연계해 수학 문화를 조성하는 등 수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 곁에 다가오게끔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던 독서교육 프로젝트인 ‘다시 책으로’는 2025년에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로 확대 시행한다. 독서는 AI교육, 디지털 환경 등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때 필수 요소이고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미’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하고 광주시와 함께 초등학교 전액, 중·고등학교 반액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 속 위기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교육공동체 ‘마음 온(on)’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학생 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린 교원들도 심리·정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2025년 교육현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8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실 혁명 등 큰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그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글로벌 교육 실현... ‘2030교실’부터”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2030 미래교실로 혁신 수업모델 제시 전남형 독서인문교육도 한층 강화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주력’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정책의 역점사업으로 ‘2030 미래교실’을 방향성 삼아 지역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교육 실현에 주력한다.

김대중교육감은 14일 목포고등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가능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교육은 학교 내 교육을 벗어나 지역, 세계와 함께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2025년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2030 미래교실’, ‘독서인문교육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생교육’, ‘전남 의(義) 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교육’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2030교실’을 각급 학교에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기준 110여개 교실 선정을 마쳤으며 ‘2030교실’에서는 국제기관과의 연계수업, 1교실 다(多) 교사 수업모델, 인공지능 기반 학습 등 다양한 혁신 수업모델을 선보인다.

학생들은 ‘2030교실’을 통해 환경·국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의제를 탐구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 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

하고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남형 독서인문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초등학교는 독서와 토론 중심의 ‘김대중 독서교실’, 중·고등학교는 독서와 글쓰기 중심의 ‘청소년 작가교실’을 운영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쫓는 ‘청소년 역사탐구대회’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전남 ‘의(義) 교육’를 통해 호남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면서 지역 문화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학생 주도형 ‘공생의 길’ 동아리를 기존 300팀에서 350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외국어체험센터를 ‘이중언어’ 교육에 방점을 둔 지역 ‘글로벌교육센터’로 전환하고 학생 국제교류사업도 확대한다. 동시에 전국 최초로 지역 다문화 인재를 초등학교로 임용하는 ‘다문화인재전형’이 도입되고 산업 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 설립도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으로 힘을 모은다.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내 모든 초교생에게 연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다 성과를 거둔 17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지역과 세계, 디지털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공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